

#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 입소교육생 현장 교육

### 삼향읍 유교리 방울토마토 재배 성현농장 현장견학 실시 방울토마토 양액재배시설·병해충 방제요령 등 중점 다뤄

무안군은 최근 체류형 귀농인의 집 입소교육생들이 삼향읍 유교리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중인 선도농가 성현농장에 현장견학을 다녀왔다고 전했다.

성현농장 대표인 김명식 농가는 현재 체류형 귀농인의 집 입소교육 현장강사로 활동 중이며 순천대 농업마이스터 과정을 수료한 방울토마토 전문 농가이다.

김명식 농가는 뛰어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본인만의 농사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고 있어 관내 선도농가로서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현장교육에서는 방울토마토 양액재배

시설, 병해충 방제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입소교육생들은 선도농가의 시설구조, 재배요령, 시설조성 비용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질문을 던지는 등 영농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입소교육생들은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기술을 전수받아 귀농에 대한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명식 농가는 “농업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기에 배우고자 하는 예비귀농인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이들에게 알고있는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입소교육 하반기 일정을 잘 추진해 교육생들의 영농 의지와 역량을 키우고, 무안군으로의 귀농귀촌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개관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이하 대중음악의 전당)을 개관한다.

시는 오는 23일 오후 4시50분 상락동1가에 위치한 구)호남은행 목포지점(이하 호남은행) 건물에서 박홍률 목포시장, 김원익 국회의원, 문차복 시의장, 시의원, 문화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오픈식'을 개최한다.

대중음악의 전당은 호남은행 건물을 활용한 공간이다. 호남은행은 개항 이후 목포에 유일하게 남은 근대 금융 건축물이자 한국인이 설립하고 운영한 민족은행으로 건축사적 가치와 역사적 상징성이 매우 높다.

대중음악의 전당은 호남은행의 원형을 복원해 무역항으로 경제가 번성하면서 음악 등 대중문화의 꽃을 피웠던 근대 목포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붕없는 근대역사박물관이라 불리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앵커시설(관광·문화·예술·여가 등)이 될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신안군, 천사섬 홍도서 '섬 불불락 축제' 개최

신안군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우리나라 최고 관광지인 천사섬 홍도에서 '섬 불불락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질녘 섬과 바닷물이 붉게 보인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홍도에서 개최되는 섬 불불락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개최되는 만큼 홍도의 대표 수산물인 불불락으로 더욱 붉게 물들여질 전망이다.

지역 방언으로 "열기"라고도 불리는 불불락은 회로도 먹지만 육질과 식감, 맛이 좋아 탕·구이·튀김 등 다양한 레시피로 요리에 먹을 수 있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홍도는 아름다운 기암괴석과 신비한 자연의 비경을 자랑하는 섬으로, 이번 축제 기간에는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불불락 요리 경연과 시식회 그리고 선상 낚시 체험을 통해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전해줄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홍도의 불불락을 소재로 홍도와 천사섬 신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축제를 마련했으며, 오감이 만족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명주기자

## 함평군, '대한민국 국향대전' 성공 기원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

### 9월23~24일 이틀간...함평파크골프장서 열려

함평군에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개최된다.

함평군은 19일 “제13회 함평천지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함평파크골프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수려한 경관과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함평파크골프장(36홀, 59,450㎡ 규모)은 지

난 8월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호남 최초(전국 15번째) 공인구장으로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66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개인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샷건 방식으로 진행되며 1일차 18홀, 2일차 18홀씩 경기해 총 합산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대회 기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원이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우리군 관광지 및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함평국화, K-문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17일간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함평=김광훈기자

## 제1회 영암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영암군청년협의회 기획부터 주도적으로 참여...실시간 유튜브 생중계



영암군은 지난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가야금 산조 기념관 공연장에서 청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청년! 새로운 시작”이라는 테마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영암군청년협의회(대표 하준호)에서 기획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청년이 주체가 된 행사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

작으로 기념식, 유공자 표창, 청년정책 제안, 기념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과 주민을 위해 실시간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

특히, 청년정책 제안을 지난 8월에 진행된 청년아이디어톤을 통해 엄선된 3팀의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행사 참석자들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열기를 더했다.

우승희 군수는 기념사에서 “새로운 방식, 젊은 생각으로 바뀌 갔을 때 영암의 미래가 있으며 청년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청년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청년들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주 여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청년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한편 군은 이번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청년주관을 지정 운영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기자

## 영광군, 전국 최초로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나서

### 기획재정부, 국회에 160억 예산 제출

영광군은 영광지역 특산물 굴비의 원재료인 참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양식산업 육성과 기술보급, 청·장년 인력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국내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 품질이 우수한 종자확보와 양식생산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요의 절반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양식산업 육성 시 수입대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예산 160억 원을 정부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번에 건립될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는 자원회복을 위한 종자생산, 양식기술 전수, 창업 교육과 가공·유통 지원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굴비 수출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